

연중 제 33 주 일

기도서 P. 477 A해

제1독서 잠언 31, 10-13-19-20-30-31

제2독서 (데살로 5, 1-6)

복 음 (마태 25, 14-30)

# 숲 정 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이 수 현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⑤5098)



## “이익금과 눈사람”

김 병 환 신부

언젠가 어렸을 때이다. 하얀 눈이 내린 넓은 운동장을 누비며 마냥 즐거이 눈사람을 만든 기억이 난다. 한주먹의 눈뭉치를 굴리면 굴릴수록 점점 커간다는 기쁨속에서 시간 가는줄 모르고 얼마나 뛰놀았던가. 본시 작은 것을 키운다는 것은 나이가 많은 적든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한없는 희열과 신비감을 가져다 주는가 보다.

비단 눈사람 뿐만이 아니다. 돈 역시 굴리면 굴릴수록 커진다. 그러기에 돈을 가지고 있으면 마땅히 굴려서 이익금을 내야 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생활에서 불문을 처럼 되어있다. 만일 우리 주변에 장사하는 사람이 돈이 아까워 몇달이고 몇년이고 땅에 묻어 두는 이가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를 보고 무어라고 하겠는가.

평신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주님의 종이 되는 순간 주님으로 부터 이익금을 남겨야 하는 금화를 받았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개, 5개, 1개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금화를 받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일, 주님이 이 순간에 당신 앞에 오시어 이익금을 셈바치게 되었다면 과연 주님은 당신에게 무어라고 말씀 하시겠습니까? “잘했다. 너는 과연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한 착한 종이로구나” 아니면 “이 악하고 불충한 종이”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처럼 믿고 의지하는 주님으로부터 “이 악한 종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면 참으로 끔찍하고 몹서리쳐지는 일일 것이다.

우리는 마땅히 이익금을 남겨야 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익금을 남겨야 할 것이다. 적어도 우리 각자가 받은 그 금화를 그대로 땅에 묻어두는 미련한 자는 되지 말아야 하겠다.

오늘날 우리 7억의 평신도가 하나씩의 이익금만 남긴다면 14억이 되는 것이며, 우리교구 6만의 평신도가 하나씩만의 이익금을 낸다면 12만이 될 것이다. 평신도라는 주님교회의 주인으로서든, 주님의 진정한 종으로서든 우리는 이익금을 남겨야 하겠읍니다.

오늘은 여러분의날 평신도의 날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찾기전에 주님앞에 각자의 셈을 바쳐봅시다. 과연 작은 일에 충실했던 착한 평신도였는지... 아마도 그 언젠가는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잘했다. 너희들은 작은 일에 충실했으니, 착한 종이로구나.” 하시며, 우리를 당신 품안에 받아 주실 것입니다.

평신도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서로 손잡고 눈사람을 만들어 봅시다.

(금산 천주교회 주임신부)



## 파 장(罷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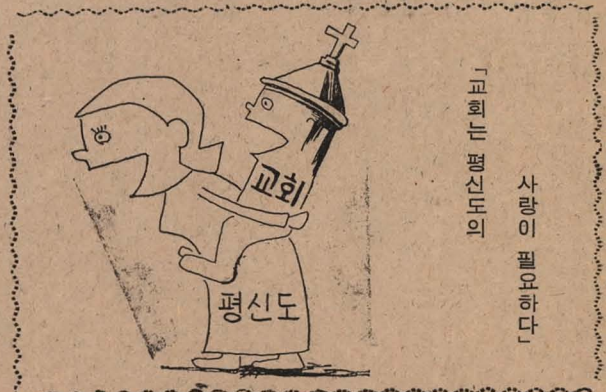
파장이라함은 「시장이 파함, 또는 그때」, 「사람이 모여서 하는 어떤 일이 거의 끝날 판, 또는 그 무렵」을 말한다. 그래서 파장에는 물건값이 싸다. 장꾼들은 빨리 매듭을 짓고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9대 국회가 끝났다. 그런데 능률과 실질을 숭상했던(?) 9대 국회가 끝나는 「파장국회」에 대해 말들이 많다. 하기가야 10대 국회를 향해 뛰어야 하는 또다른 고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리라.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하더라도 국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법률들을 56건이나 무더기로 통과시킨 것은 조금은 너무나 하다. 메스퀀들이 꼬집는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국회가 얼마나 체기능을 다하지 못하였기에 9대 국회의원 이 6년동안 받은 세비를 계산해보고, 1년 평균 개월일수를 따져서 비판을 하는가. 입법부(立法府) 아닌 입법부(立法部)라는 표현이 말하는 의미는 도대체 무슨 뜻인가. 왜 그렇게도 국회무용론을 들고 나서는가. 국회를 탓하기에 앞서 국민들의 의식과 그 태도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제 4부라는 언론의 자세도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상황이 그러하니깐 별 도리가 없다는 말만으로는 훗날에 심판을 면할 수는 없으리라.

예수께서는 처음보다는 마지막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이 핑계를 대고 불참했을 때, 예수께서는 “가난한 사람· 불구자· 맹인· 절름발이 할 것 없이 모두 데려오라”고 말씀하신다. 잘 들어야 한다. 처음에 초대받았던 사람들 중에는 잔치에 참여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루카 14, 12-24)

파장이라고 해서 그냥 싸게 팔아야만, 대강대강 넘어갈 일만은 아니리라.

## 숲 정 이 산 채





# 제 11 회 평 신 도 의 날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오늘은 열한번째 돌을 맞는 「평신도의 날」입니다.

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평신도들이 사제들과 더불어 가톨릭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사실상 공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사업을 함께 있어 평신도들의 의무와 책임이 사제들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의 가톨릭은 태초부터 평신도들의 손에 의해 세워진 것이지만, 지년간 10여년간 우리 평신도들이 한 일도 눈부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자배가 운동, 가정성화 운동, 재교육이나 정예교육, 국가적 차원에서 당면 문제들에 대한 연수회 개최, 교회간행물 보급등은 후일 역사에 의해 그 공이 높이 평가되기도 남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소원을 이루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건대전 신부님을 비롯한 103위 우리 복자들의 시성 시복운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순교선열들이 복자로 선포된 이후 58년, 거국적 운동으로 전개한 이래 10여년, 근년에 들어와서는 해마다 연례행사로서 이 시성시복 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왜인지 뜻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혹은 평신도들의 무성의로, 혹은 신부님들의 방관으로 기도조차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딱한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관한한 우리들은 순교선열들에게 큰 죄를 지었고, 이 순간도 짓고 있습니다. 이래로 가만 앉아서 후손들로부터 어떠한 책망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깊이 반성하고 자각하고 분발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뜻에서 평협은 시성시복 운동을 평신도들의 제일 큰 당면과제로 정하고, 해에도 우선 114만 가톨릭 가족들이 혼신의 정성을 모아 기도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선열들의 순교적 정신을 이어받아 복음선교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호응을 갈구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 I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우선 선조들의 신앙을 현양 하십시오. 1784년 3월 24일 우리 천주교가 베드로 이승훈 첫 교우의 손으로 이땅에 들어 오자마자 천주교에는 1785년부터 크고 작은 박해가 증첩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1801년 신유년 박해, 1839년 기해년 박해, 그리고 1846년 병오년 박해, 끝으로 천주학쟁이의 씨를 말리겠다고 칼을 뽑아 들었던 1866년 병인년 대원군의 박해는 참혹했습니다. 이분들은 신앙을 증거하고 천주만대 후손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얻어주기 위해 칼아래 한방울 이슬로 사라지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았습디다. 아니, 오히려 영광으로 믿고 칼을 받으며 형장으로 나갔습니다. 이분들은 오직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에서 재산, 건강, 가족, 명예, 지위도 버렸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생명까지도 초개같이 버리신 사랑의 영웅들이 셉니다.

### II

여러분! 사랑은 사랑을 부릅니다. 그 많은 우리 선조들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제일 아깝고 귀하고 또 하나 밖에 없는 그분들의 생명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사랑은 사랑으로 갚을 시기가 왔읍니다. 이 순교자들을 현양하고 그분들에게 사랑의 빛을 갚아야 하겠읍니다. 그 위대한 사랑을 이제 우리는 시성시복 운동과 사회의 정의 평화를 위한 선교로 갚아야만 하겠읍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1백 14만 한국 천주교 신자들은 사랑의 영원한 채무자로 불명예스러운 굴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 III

형제여! 자매여! 시성시복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총 동원 합시다.

여러분! 부디 기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순교선열들의 시성시복은 반드시 성취 될 것입니다. (참조 마태오 18, 19-20)

시성 시복을 위해 기구하는 요령은 103위 복자 중에 어느 한 분만의 시성 시복을 목적하지 말고 103위 공동으로 우리의 영신 사정이나 육신 사정이나 특히 불치의 병고등에 기적을 청해야 합니다. 103위 공동으로 기도하여 그결과 기적 한가지만 생겨도 103위의 복자가 다같이 성인대열에 오르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도 당신이 뽑으신 백성이 밤낮 부르짖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올바르게 판단해 주시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그대로 두실것 같습니까?」하고 반문 하셨습니다. (참조 루가 18, 1-8. 야고버 5, 17. 출애굽기 8, 8-14)

미국에서 근년에 기적이 일어났읍니다. 불치병인 암에 걸린 교우가 지성껏 9년동안 어느 복자에게 기도를 계속한 결과 완쾌됐읍니다. 그 복자가 시성식을 받을때 그 교우는 로마에 가서 기적의 산 증인으로 영광스런 그 시성식에 참석하엿읍니다.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우리 다같이 경진한 마음으로 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께 시성시복을 청하는 기구를 간절히 올립시다.

「모든 성인들의 덕행으로 찬미 받으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천주여! 당신은 일찌기 당신 교회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증거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103위 우리 순교자들을 복자로 선포하여 그들을 공경할 수 있도록 허락 하셨나이다.

이제 우리 복자들의 공로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우리를 환난중에서 더욱 보호 하시고 (특히 이환자 <아무> 우리가 소망하는 특은)을 위하여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빨리 허락하심으로써 당신의 전능을 들어 내시고 또한 우리 모두의 소망대로 우리 복자들이 성인 대열에 오를수 있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 다. 아멘。」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 수입악기 시판개시!

- 취급품목 { 피아노: ① 화려한 선율의 결정체 Gors & KALLMANN(독일)
- ② 122년의 전통과 우아한 품위의 WURLITZER(미국)
- 전자음계: 전자음계의 대명사 HAMMOND(미국)

서진 피아노 전주대리점      전화 ②4690

(구 삼남극장 사거리)



# 아버님의 마지막 눈물

서 석 구 신부

지난주 윤정이에 「추사이망」이란 내용의 김병엽 신부님의 글을 읽고, 7년전에 작고하신 나의 아버님을 생각하며 이 글을 쓰고자 한다.

신학교 5학년때 집에서 전화가 왔다. 아버님께서 위독하시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부님을 모셔 병자성사를 받으시게 하였다. 고백성사를 하시겠다고 하여 모두 자리를 비켰다. 조금 있으니 방에서 아버님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하도 애절하고 목매인 울음에, 평소애 그렇게 눈물이 없던 나였지만, 가슴이 저려오는 진울을 느꼈다. 무슨 사연이 있기에 그토록 슬피우셨는가?

마침 오늘 어느 할머니(85세)에게 병자성사를 드렸다. 할머니는 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신다. "신부는 이 죄인을 용서해주고 천당갈 수 있게 잘 기도해달라"는 것이다. 이 할머니의 눈물을 보니 아버님의 눈물이 생각난다.

사람은 세상의 빛을 처음 볼 때 울음을 터뜨린다. 어떻게 보면, 사람은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간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것이 언젠가는 한번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아무리 사랑하던 사람도 그 사랑으로 죽음을 막을 수 없다. 제왕의 권력도, 황금의 만능도 죽음앞에는 무기력할 뿐이다. 이 막을 수 없는 죽음앞에 태어날때와 같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다. 태어날때의 눈물이 환희의 눈물이라면, 마지막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라할까?

눈물을 흘리는 사연은 많다. 소망이 이루어져 기쁨의 눈물, 급작스러운 불행으로 슬픔의 눈물, 불의를 못참는 울분의 눈물, 아픔을 못이기는 진통의 눈물, 어린 아이의 배고픈 눈물에서 사나이의 애끓는 눈물까지. 그러나 죽음을 눈앞에 두고 흘리는 통회의 눈물보다 더 값진 눈물은 없으리라.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위령성일의 밤이면 더욱 아버님의 눈물이 생각난다. 나는, 처음 얼마동안은, 아버님의 눈물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세상을 떠나시며, 인간적인 감정에서 흘리시는 눈물이라니 생각해왔다. 그러나 몇년이 지난 오늘에 생각해보니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다.

속담에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마음이 착해지고, 새가 죽을 때가 되면 그 울음소리가 구슬프다"고 했다. 세상을 착하게만 살다가 돌아가신 아버님의 마지막 눈물은, 틀림없이, 통회와 기쁨의 눈물이었다고 나는 믿는다. 어렵게 사는 친구에게 반지를 빼주고 어머니께 오해를 받으셨고, 열차장에서 고학생에게 가진 모두를 다 주어 집에 오실 때엔 여비가 모자라 곤란을 받으셨던 당신이셨기에 더욱 그렇게 믿는다.

아버님, 차가운 바람이 일고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이 되면, 저는 아버님께서 흘리셨던 입중의 눈물을 다시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당신의 눈물은 하늘에 용사를 비는 겸손과 통회의 눈물이었으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주여! 그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옵고 당신을 뵈을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합월 천주교회 주임신부)

## 요심이 (277) 김병오



□개업안내  
둔율동 천주교 입구에 유미미용실 설치 교우 여러분의 성원 바람  
**유미미용실**  
대표: 최완선(올리바)  
전화 ☎ 3693

◇경운기·분무기·전자등 탈곡기  
트랙터·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열(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9001,9002,9003번

□ 소아과 전문의 □  
**군산 김 정 승 소 아 과**  
□ 영동파출소에서  
개복동교회 중간

□여성 여러분에게  
멋을 선사합니다□  
**파티마의상실**  
최 춘 자(로사리아)  
전주시 중양동 3가 28번지  
(구려파 제과점 옆)  
전화 ☎ 6219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아크릴·아취·실내장치·각종간판  
페인트·집칠  
**전주 광고사**  
대표 이 기 배(요비노)  
□ 전주시 다가동 1가 18  
☎ ☎ 1585  
◎ 감초당 약국 앞

★양심을 찾자★  
현대칼라 특약점  
카메라 대여 학교앨범 각종 사진 출사  
**중앙 사진관**  
이리시 창인동 중앙시장 사거리  
이리여교 입구 전화 7901  
한 원 규 (야고버)

###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 ※ 오늘은 제 11회 평신도의 날! ...오늘 헌금은 평신도 활동을 위해 쓰여집니다. 협조바랍니다
- 피터마 성당 전화변경: ☎ 0915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1. 교구 예산 확정 회의...20일(월) 오전 10시 30분, 교구청 회의실
    - ※ 참가자...사제대표(참사회, 정의회), 수녀 연합회 임원, 평협 상임위원
  - 2. 쌀 생산자 대회 및 추수 감사제...한국 가톨릭 농민회 주최
    - ※ 호남지역...27일(월) 오후 2시~28일(화) 정오, 광주 계림동 성당, 미사 주례...김재덕 주교
    - ※ 교구내 농사짓는 교형자매 및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3. 성령 기도회...매주(목) 오후 8시, 가톨릭센터 ※ 성령 세미나 받으신 분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 4. 베델 성서 연구 감동회...79년 1월 29일(월)~2월 9일(금), 회비: 6만원
    - ※ 신부님들을 위한 전구 연수회입니다. 11월말까지 접수합니다. (문의처...법석구 신부)
  - 5. 성소자 피정...오늘 하루, 노송동 피정의 집에서
    - 조국을 위한 월요 기도회...20일(월) 오후 7시반, 가톨릭센터 ※ 특강...정진동 목사(충북의 노동운동가)
    - 12월 3일(다음주일)은 숲정이 창간 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 숲정이에 기대하시는 좋은 말씀 11월 27일까지 보내 주세요.
      - ※ 월고걸이...200자 원고지 6매 이내
      - ※ 자겨...숲정이를 받아보시는 분이려면 누구나 좋습니다. 사진도 보내주세요.
  - 동일방직에서 해고된 근로자를 돕는 성금...원평 분당 목사회 참가 교우들 5,000원

#### (중양)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서용복
보좌 신부	홍승영
보좌 신부	박현배
사도 회장	이영복

※ 특보: 미사성가 안내관 익명 40,000원

지난주 봉헌금: 192,525원

#### (서학동)

전화 ③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박장준

- 1. 성모회: 오늘(19일) 공식 미사후
- 2. 성경·성가집 지참하세요(미사중에)
- 3. 미사시간 엄수 바랍니다
- 4. 하루에 한쌍씩 성경을 봉독합니다
- 5. 전례담당(공식 미사)
  - 19일-복사: 김영훈, 안재홍 해설: 임주택
  - 26일-복사: 김옥기, 양쌍수 해설: 함문권
- 6. 중·고 연합 Cell 지도자 야외 회합
  - 일시-11월 18~19일 장소-겨포
- 지난주 봉헌금: 147,146원

- 1. 부녀 주일: 10시 미사후 월례회 있음
- 2. 반사회 및 가정방문
  - 9반-21일, 10반-22일, 11반-23일, 12반-24일
- 3. 사제관 보수 노력봉사
  - 1반~4반-20일, 5반~8반-21일, 9반~12반-22일
- 지난주 봉헌금: 40,520원

#### (숲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 (노송동)

전화 ③7032

주임 신부	공아영
보좌 신부	김영희
사도 회장	김성복

- 1. 누갈다 부녀회: 오늘 공식 미사후 오후 6시 피정 신청에 들어갑니다. 회원들의 빠짐없는 참석요
- 2. 성령 세미나시작: 11월 24일(금) 오후 7시 사도회·요안회·누갈다 부녀회·청년회 각 단체 임원 빠짐없는 참석 바람
- 3. 학생미사: 토요일 7시 중·고생은 모두 참석합니다
- 4. 가을 판공 성사일정 안내
  - 12월 4일-서신동, 5일-서신동 2구, 6일-태평동
  - 7일-진북1동, 11일-진북2동7반, 12일-진북2동6반
  - 13일-진북2동4반, 14일-진북2동3반, 18일-진북2동2반~5반, 19일-진북2동1반, 20일-금암동
- 지난주 봉헌금: 133,290원

- 1. 성우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 2. 각 분과 위원회: 오늘 공식 미사후 선교, 전례, 봉사분과 위원님들은 꼭 참석하세요
- 3. 자모회 조직 합니다: 분당 주일학교의 자모님들은 빠짐없이 참석하세요(오늘 공식 미사후)
- 4. 신용 조합 이전: 조합 사무실이 전고 정문 맞은편으로 이전했습니다. 양지 하시기 바람
- 5. 성가 연습: 매주일 오전 9시반~10시까지 대상-일반, 청년, 학생합동
- 6. 예비자 면접: 22일(수) 오후(직장인과 학생은 저녁) 제 2단계 예식, 25일(토) 오후 8시
- 7. 교무금 납부의 날: 다음주는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교우 여러분의 협조를 바람
- 8. 축! 결혼: 11월 26일 오전 11시 반 신랑-김기득군, 신부-김춘애(메레사)양
- 지난주 봉헌금: 78,730원

####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이순성
사도 회장	유석승

- 1. 교미씨음 월례회: 오늘 오후 2시
- 2. 가정방문: 동·서교동(화~금)
- 3. 성당 의자 방석 완비: 차모회
- 4. 예비자 교리: 주일 낮, 수·목 저녁 7시 30분
- 5. 성령 기도회: 금요일 미사전 저녁 7시
- 지난주 봉헌금: 160,370원 교무금: 240,000원

####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김행상
사도 회장	유제상

#### (파티마)

전화 ③7249

주임 신부	문정현
사도 회장	채수현

- 1. 진복회 월례회: 26일 공식 미사후
- 2. 부녀회 월례회: 공식 미사후
- 3. 다음주 공소미사: 23일(목) 미산리
- 4. 오늘은 평신도의 날
  - 강론-엄기섭 해설-유제상
  - 독서-김용환, 김용식
- 5. 밀린 봉헌금은 판공전까지 완납하세요
- 6. 회원모집: 월요일 오후 5시 30분 대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람
- 7. 혼인 성사 받으실 분은 1개월전에 분당 사무실과 면담을 바람
- 지난주 봉헌금: 72,455원

- 1. 교적정리: 판공전에 교적정리 하시고 성사 준비에 지장없도록 유념하세요
- 2. 예비자 교리 안내: 성탄 영세준비에 많은 예비 교우를 안내합니다 매주일 10시 미사후-일반인, 주일 저녁 미사후-직장인
- 3. 바오로 청년회 조직: 청장년 모두 참여합니다
- 4. 부녀회: 수녀원 살림 준비에 뜻 있으신분은 사도회 사무실에 연락 하세요
- 5. 수녀원 증축 신임금 납부:
  - 황희상(5만원), 장순자·익명(각 1만원)
  - 임순이(2천원) 납입누계: 677,000원
- 6. 교무금: 미신인자는 11·12월분만 납부 하세요
  - 금주 납입자-이윤, 강병수(각 5천원) 김순애(15,600원) 이순례(11,000원) 서숙자(4천원)
  - 문순덕(3천원) 오영걸(2,200원), 박남주(2천원)
  - 손복순(1천원)
- 7. 제 2차 가정방문 완료: 제3차 가정방문때는 "판공에 관한 업무·신자 가정 표식표"를 붙이는 일입니다
- 지난주 봉헌금: 37,510원

#### (복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조성호

- 1. 사도회 연중 평가회: 오늘 공식 미사후
- 2. 부녀회 월례회: 다음주일 공식 미사후
- 3. 오늘은 평신도의 날: 특별헌금 있음
- 4. 특별헌금: 보좌신부 사제관 비품비
  - 박상기-10,000원 누계 68,000원